



제주녹색당 제2공항 대응 어떻게 해야할까?

제주투데이

2017.11. 제2공항 반대 기습시위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였다. 제주 녹색당은 24일 오후 4시 코엑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축사를 하던 중 녹색당원들과 제주녹색당 고은영 공동운영위원장이 “제주에 먹구름 띄우는 국토부 각성하세요” “단식 42일 해도 모른 척 일방통행 국토부” 등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기습 시위를 했다.



2018.06. 지방선거

고은영 후보는 “우리 목청껏 떠듭시다. 저와 함께. 지금 국제자유도지가 필요하냐고 이야기합시다. JDC를, 제2공항을, 오라관광단지를 거부합시다. 제주만의 새로운 비전을, 소외됐던 모든 정치적 시민권을 이야기 합시다. 평화의 섬을, 생명농업을, 기본소득을, 무상버스를 이야기합시다.”라며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이번 선거”라고 강조했다.





2018.12. 도청앞 다시 천막 시작

2018.12.19 오전 김경배(51·제주 서귀포 난산리)씨가 제주도청 맞은편에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부지 선정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했다



2018.12. 도청앞 천막당사 설치

제주녹색당이 지난 2018.12.30 제
주도청 앞에 설치한 시민 천막당사.



2018.12. 도청앞 녹색당 기자회견

제주녹색당은 2018.12.31 오전 제
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민 천막당사를 운영하며 원희룡 제주
지사의 일방적인 도정운영을 막겠
다"고 밝혔다.



2019.01. 원희룡 행정대집행 강행

우려했던 충돌이 벌어지고 말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에 항의하며
제주도청 앞에 천막을 설치한 시민사
회단체와 이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
원들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

제주녹색당 등 시민사회단체는 "원희
룡 지사가 우리들의 요구(제2공항 관
련 면담 수용)를 받아들이기 전 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배수의 진
을 쳤고 공무원들은 인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천막을 일순간 철거했다.



2019.01. 행정대집행 이후 천막촌

제주녹색당 천막당사를 비롯해 페미니즘 시민천막, 청년민중당 천막,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천막, 김경배님 단식천막, 여성천막,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천막,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회원들의 천막 등 다양한 의제를 가진 천막들이 들어서, 마치 광화문 광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현재 도청 앞은 제2공항을 넘어 제주의 다양한 현안을 공론화하는 시민 광장의 성격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9.01. 당원3인 동조 단식농성

2019.01.17 제2공항 반대 단식 30
일째를 맞은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와
함께 제주녹색당 여성 당원 3인
동조 단식 시작

2017. 이후 제주녹색당 스탠스

제주녹색당은 ‘도청앞천막촌사람들’ 시발점이었고 상시적으로 열리는 도청앞천막촌 회의를 통해 비상도민회의와는 비교적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단식자 김경배님 곁에 함께 했으며 도청앞 천막당사 설치 제주도청 현관 점거 등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을 했다. 당시 국토부와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의 3자 협의로 진행된 제2공항 여론조사 실시에 동의하지 않는 스탠스를 취했었다.





2022.06. 지방선거

부 후보는 “제2공항이나 해저터널은 도민을 무시한 채 논의되고 있고 초대형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사업”이라며 “제주지역 선거에서 꼭 논의해야 할 제주 환경 수용성 논의를 뒤로한 거대양당이 개발 사업으로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왜 제주 문제를 중앙이 쥐락펴락하는가. 도민들은 이미 제2공항이 필요 없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정치권은 자꾸 주장하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이에 대해 “제주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며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주도에 제주도지사로 있을 때 진행한 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무엇인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휴지조각처럼 짓기면서 도민의견 수렴을 운운하는 것은 대체 무슨 꿍꿍이인가”라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는 이미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며 “늘어나는 관광객을 무제한 허용할 것이 아니라 제주의 하수와 쓰레기 처리, 지하수 용량 등을 감안해서 수요관리가 시급한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해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는 계획은 제주도민의 생존은 아랑곳 없이 개발업자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며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은 이미 2021년 2월 발표된 도민여론조사로 판명이 났다.

국토부는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기 전에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멈춰라”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국토부를 향해 제주도민을 ‘패싱’한 것을 사과할 것과 제2공항을 백지화할 것 등을 요구했으며, 제주도를 향해서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관광객 수요 관리를 주문했다.

- 2023.01.06 제주녹색당 논평

2009.08. 주민소환 트라우마?

2009.08.27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태환 제주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11%,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주민소환이 무산! 청구 서명에 참여한 시민은 모두 7만7367명이다. 청구 요건인 4만1649명을 3만명 이상 넘어선 수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인수보다도 적은 투표인수에 충격! 제주사회에서 공무원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 사례





2023.02. 무엇을 위한 주민투표인가?

작년 4월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투표권자의 1/3분(33%) 이상이 참여해야 했던 투표 결과 확정 요건은 1/4분(25%) 이상으로 완화됐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11%였고 제2공항 추진하는 윤석열 원희룡 권력에 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까지 주민투표도 원희룡이 컨펌해야 실효가 발휘되기도 하지만 반대도민 동력상실 가능성 크다고 봄.

제주 녹색당

대안의 숲, 전환의 씨앗

2023.03. 그러므로 제주녹색당은

“왜 제주 문제를 중앙이 쥐락펴락하는가. 도민들은 이미 제2공항이 필요 없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헛소리냐?” 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제주 진보정당 연석회의를 통한 공동대응' 을 제안한다! 진보정당 연대 기조는 "제2공항 필요없다 도민결정 이미 끝났다"



2023.03. 진보정당 연대 공동액션

(1) 진보정당 연대 기자회견

(2) 제주도민 캠페인 및 집회

"제2공항 반대! 도민들은 결정했다"

(3) 414 기후정의파업 적극 연대

"이대로 강행한다면 국토(파괴)부와 환경(착취)부가 있는 세종시에 가서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 저는 이게 '녹색당 답게' 정치적으로도 녹색당 지지자를 놓치지 않으며 제2공항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코엑스에서 기습시위가 없었다면

**지방선거에 정치적수사 아닌 '제2공항 백지화' 공약이 없었다면
제주도청앞에 천막당사를 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도지사 도의원 국회의원 없는 정당 녹색당 현실 앞에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기만 앞에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이 없었다면
제주녹색당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